

한국교회와 돈의 유착관계:

짐멜(G. Simmel)의 『돈의 철학』과 영화 <2012>의 상호 비교를 통해서

진환주(송실대 기독교학과 박사수료)

논문초록

본고는 영화 <2012>를 텍스트로 하여 돈에 대한 철학적 사고, 특별히 돈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짐멜의 『돈의 철학』을 중심으로 분업과 임금 등 화폐경제로 말미암아 개인과 사회, 주관적 문화와 객관적 문화의 불균형을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특히 한국교회는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음을 지적하였다. 돈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돈을 축복의 척도로만 강조한 탓에 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간과한 것이다. 돈을 모으고, 돈을 누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돈산을 더 섬기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만은 아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후히 베푸는 너그러운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박하고도 단순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정당한 삶의 모습이다.

주제어: 물질주의, 한국교회, 개인주의, 청부론, 금욕주의

I. 서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신명기 15:5).”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영화의 소재로 삼아 작품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환타지 영화의 소재들이 그렇다. 기독교성을 나타내는 영화들로 루이스 작품을 영화로 만든 마이클 엡티드 감독의 ‘나니아 연대기’ 등을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환타지 영화는 기독교적 상징과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해준다.(송태현, 2008: 49) 반면에 성경에 나타난 소재를 가지고 감성과 비합리성을 강조하는 포스트모던식의 영화도 있다.(이경직, 2008: 93) 인류 재난영화의 대부인 톨랜드 에머리히 감독의 작품 중에 최근에 그의 야심작 ‘2012’라는 지구 종말의 영화가 그렇다. 새로운 시각의 노아의 방주의 모습을 그린 영화다. 성경속의 노아의 방주는 인간이 만든 하나님의 방주이며 반면에 ‘2012’ 영화에 나타난 노아의 방주는 곧 인간이 만든 돈의 방주를 뜻한다. 돈이 인간을 선택하고 돈과 생명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012’ 재난영화의 톨랜드 에머리히 감독의 명성은 고질라, 투머로우, 인디펜더스데이, 등 그의 영화를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다. 이번영화도 감독의 명성으로 500만의 관객을 돌파하여 2008년 해외 개봉 2위를 기록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다에서 배가 좌선했는데, 구명정에는 단 5명만 탈 수 있다면, 당신은 누구를 태울 것인가?”라는 질문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레크리에이션이나 세미나 같은 곳에서 들어봤음직한 질문인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사람마다 제각각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말한다. 나름대로 가치관과 기준을 갖고 살려야 할 5명을 결정한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영화 <2012>이다. 영화의 내용은 단순하다. 2009년 인도 지질학연구에서 태양의 폭발로 인해 지구의 물질과 반응하여 지구 내부를 뜨겁게 달군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미국 정부에서는 2012년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했고, 현대판 돈의 방주를 만들어 선택된 자들만이 살아남게 된다는 내용이다.

영화는 영화관에서 상영될 때 관객에게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복잡한 현상을 나타내며 관객과의 의사소통의 새로운 도구가 된다.(이철우, 2003: 181) ‘2012’ 영화가 주는 메시지를 영화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말의 원인과 과정 역시 자연현상에 가깝다. 지구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 방주에 얼마동안 피신해 있다가 다시 지구에서 생명을 이어간다. 과학자에 의해 대홍수를 예견했고, 과학과 물질의 힘으로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돈이 없었다면 과학도 무용지물이기에 결국은 돈이 최고의 역할을 한 셈이다.

둘째, 방주에 들어가 있던 선택된 자들 또한 인간의 이성과 과학에 의지한다. 성경에서는 방주에 탑승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자들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의인이며, 완전한 자’(창세기 6:8-9)였다고 한다. 그리고 탑승대상은 노아의 가족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각각 한 쌍씩’(창세기 6:19)이었다. 그러나 영화 <2012>에서 탑승대상은 10억 유로를 가진 부자와 고위급 간부·정치인·기술자·과학자 등이다. 이들의 면모를 보면, 우수한 두뇌를 가진 자와 부자가 탑승대상이며, 그들만이 살아남을 자격이 있다고 은연중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영화에서는 휴머니즘적인 장면을 몇 컷 보여준다. 즉 배를 만들었던 중국 노동자들이 마지막 순간 배에 탑승하는 것과 삼류소설가였던 주인공의 영웅적인 행동을 통해, 극적으로 마지막 배가 출항하는 모습, 그리고 이혼 위기에 있던 부부가 결국 회복되는 모습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면들은 어색한 걸치레에 불과하다.

셋째,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영화에서는 모든 종교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다. 백악관 내의 교회에서 미국대통령이 기도하는 모습, 이슬람교도의 예배의식, 로마의 카톨릭 교회, 인도의 힌두교, 티벳의 불교 등 세계의 모든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재앙 앞에서는 무기력하다. 특히 로마 교황청의 지붕이 무너질 때, 그 아래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는 반면, 티벳의 불교인은 히말라야 산 정상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 앞에 종을 치면서 잔잔하고 평온한 미소를 띠며 최후를 맞이한다. 이 영화의 소재는 기독교에서 가져왔지만, 기독교의 진리와는 완전히 동떨어진데다, 물질보다 못한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돈에 의해 흔들리는 현대 교회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영화는 포스트모던의 감성과 비합리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약화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경직, 2007: 19) 본고에서는 이 영화를 유대인 출신의 이론가이자, 사회학자인 짐멜(G. Simmel, 1858~1918)의 이론, 특히 그의 저서 『돈의 철학』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에서 돈과 사람의 관계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현대의 기독교와 영화 <2012>를 비교하면서,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돌아

보고, 성경적인 관점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영화 <2012>의 서사구조와 짐멜의 『돈의 철학』의 상관성

삶과 행위에 관심을 둔 짐멜은 인간의 모든 제도와 구조는 돈에 의해 이끌려간다고 보았다. 인간은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인간의 본성이 진화된다는 것이다. 그것의 역할은 돈이며 돈은 인간의 본성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인류의 모든 생명체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넉넉히 누리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가난은 인간사회의 불변의 조건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는 얼마정도의 재산을 보유해야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것이다. 영화 속의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자. “그들은 좌석을 팔고 있어요. 당신과 나 같은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빌게이츠나 러시아 갑부들이나 살 수 있어요.” 영화 속의 한 대사이다. ‘돈’이 있어야 재난에서 인류를 구원할 방주를 만들 수 있고, 갑부들은 그 돈으로 인해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게 된다. 영화를 지배하는 거대한 담론은 ‘돈’이다. 엄청난 부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돈 없고 능력 없는 평범한 사람은 살 권리를 포기해만 한다는 기독교정신과 위배되는 돈을 통한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돈·물질·화폐·경제 등의 주제로 많은 연구가 있었다. 이 중에서 돈에 대한 사회학적·철학적 접근을 일찍이 시도한 이가 짐멜이며, 그의 역작은 1900년에 쓴 『돈의 철학』이다. 기존의 돈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경제학 분야에서 ‘돈을 버는’ 것에 관심을 두었지만, 짐멜은 ‘돈의 가치와 사람과의 관계’에 관심을 두었다.

짐멜은 사회학의 창시자 콩트와도 대비된다. 콩트는 산업혁명을 통한 자본주의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 경험에 의해 인간의 삶과 행위의 새로운 질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다. 그의 관심사는 인간 사회 전반에 흐르는 일반적인 이론이었다. 반면, 짐멜은 제도·조직·구조 또는 시스템을 사회학 인식의 세계로 끌어들여 개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사회학의 인식대상이라고 보았다. (신응철, 2009a: 115)

짐멜은 문화를 ‘삶의 세련됨과 지성화된 형식, 혹은 정신적 육체적 노동의 업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에너지는 발전에 의해 극복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문화는 자연의 발전이며, 삶의 가치는 문화가 됨으로써 자연의 힘과 관념적인 내용을 초월한다는 것이다.(Simmel, 1983: 557) 이어서 자연적 메카니즘에 의해서 사물들에게 주어진 수준을 초월하여 그것들의 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개량한다고 보고 있다. 짐멜에 의하면, 미학적·과학적·윤리적·행복론적 및 종교적 업적들도, 인간의 본성이 그 자연의 상태를 넘어서서 발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요소들로 통합되기 위해 지양되어야만 한다고 한다. 즉 그러한 것들은 인간 본성의 발전이 밝고 지나가야 하는 도정인 것이다.(Simmel, 1983: 559)

짐멜의 돈의 가치는 문화의 질을 높이고,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문화의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 하에 현대 문화의 독특한 관계, 특히 돈과 관련하여 주관적 문화와 객관적 문화의 대립을 설명해간다. 도구·수송 수단·과학·기술·예술의 산물 등과 같이 삶을 충족시켜주는 것들은 확실하게 발전했지만, 개인들의 문화는 발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기까지 했다고 짐멜은 보고 있다. 예를 들어, 18세기 교육은 ‘인격형성’과 같은 내적 가치에 집중하였지만, 19세기에 들어와서는 ‘객관적 지식’과 ‘행동방식’ 등의 교양으로 대체되었다. 사회생활과 개인의 삶의 단편 사이를 짐멜은 ‘불가사의한 관계’라고 말하고,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기하였다.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만일 모든 사물의 문화가 인간의 문화에 불과하고, 따라서 우리는 오직 사물들을 발전시킴으로써만 우리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개별정신의 발전과는 무관하게 단지 스스로의 힘과 규범에 의해서 진보하는 대상들의 발전, 세련 화 및 지성 화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Simmel, 1983: 561)

짐멜은 사회와 문화는 발전하였고, 그러한 발전을 통해 우리 자신 또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는데, 왜 개인의 정신은 발전하지 못했으며, 개인의 발전과 무관하게 사회는 또한 계속 발전하고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짐멜은 객관적 문화와 주관적 문화의 불균형적인 관계와 분리의 원인을 찾기 위해 ‘분업’이라는 현상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대상 속으로 우리의 ‘자아’를 투입시키고, 다양한 특성들을 ‘자아’의 통일성 속으로 집약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분업으로 말미암아 노동자의 존재형식과 생산물의 존재형식의 괴리가 발생하여 생산물은 노동자로부터 분리되었다. 생산물의 의미는 생산자의 정신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생산된 생산물들과의 관계

로부터 도출된다. 생산물은 일반적인 노동생산물이 갖고 있는 정신적 성격을 상실하고, 주체성과는 관련이 없는 객관성 속에서만 업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짐멜은 판단했다.(Simmel, 1983: 568)

생산단계에서부터 개인의 정신과 분리되는 산물이 등장하는데, 소비문화의 확대로 이러한 분업과 전문화를 더욱 촉진시켰고, 불균형의 관계는 더욱 확대된 것이다. 소비의 확대는 ‘문화의 객관성과 문화의 분업을 연결시켜주는 다리(Simmel, 1983: 569)’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분업과 전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동 자체마저도 노동자로부터 분리되어 버렸다. 노동력이 하나의 상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짐멜은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가격으로 매겨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게 되며, 노동이 자신을 떠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분리된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노동자가 노동생산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사야 한다. 노동자는 생산물과 분리되어 ‘임금’을 받고, 그 임금으로 다시 노동생산물을 사야 한다. 분업으로 인하여 생산물은 늘어나고, 객관적 사회 환경과 문화는 발전하였지만, 그럴수록 개인은 더욱 분리되고 고립되어 갔다. 주관적 문화와 상관없이 객관적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객관적 문화, 주관적 문화의 대립은 화폐경제의 파생물인 것이다. 동시에 화폐는 분화되고 복잡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필수적인 선행요건이 되었다. 또 생산이 전문화되고 다양화되어 화폐라는 수단을 통해서만이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생활양식은, 그것이 객관적 문화와 주관적 문화의 관계에 의존하고 있는 한, 이러한 매개를 통해서 화폐거래와 결합된다. 화폐거래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다. 즉 화폐거래는 주관적 정신에 대한 객관적 정신의 우위를 의미할 뿐 아니라 반대로 주관적 정신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자기발전을 표현하기도 한다.(Simmel, 1983: 585)

화폐경제로 말미암아 주관적인 정신과 별개로 객관적인 문화가 발전하였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화폐가 또한 주관적 정신의 독립과 자기발전을 꾀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짐멜에 의하면, 화폐는 인간과 사물 사이의 매개수단으로서 사물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과 관계로부터의 해방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며, 이러한 해방은 우리의 내면세계가 발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돈에 의해서 발현된, 밀접하고 불가피한 결합관계는 개인의 주체와 독립성을 넓히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결과 강력한 개인주의를 창출하게 되었다.(신응철, 2009: 123) 즉 돈에 의한 자기 발전은 ‘개인주의’를

남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치중하고 자기와 관련이 있는 주변세력에게만 관심을 가진다. 인간은 객관적인 환경으로부터 더욱 더 분리되고, 자신의 가장 내면적인 차원에만 머무르게 된다.

이처럼 개인의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물질주의는 영화 <2012>에서 짐멜이 말한 강력한 개인주의를 잘 나타내고 있다. 영화 속 사람들은 커다란 재난이 닥쳐올 것이라는 예측 하에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한다. 각국의 정상들은 재난의 사실을 일곱기 밑에 붙이고, 이 기밀을 누설하려는 자는 가차 없이 처단해버렸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짐멜의 『돈의 철학』에 의하면, 이 시대의 개인은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으로 분리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고립된다.

영화에서 지리학자는 인류종말의 사실을 알려서 나름대로 살아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장관은 그렇게 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거절한다. 더불어 그는 “선택된 자들이 안전하게 방주에 탑승한 이후에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인류 보전의 길입니다.”라고 말한다. 선택된 자들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포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돈 없고, 힘없는 자들은,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의 힘이 만들어낸 가치관이다. 돈 없고 능력 없는 자들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열등한 인간들은 살 가치도 없고,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되는, 알아서 생존해야 하는 법칙 아닌 법칙이 영화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영화에는 몰래 배에 숨어든 가족들이 있었다. 바로 주인공 가족이다. 그런데 이들에 의해 또 다른 희생자가 생겨난다. 방주는 고장이 나고, 방주 안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

결국 주인공의 영웅적인 행동으로 방주가 다시 작동을 하고,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낸다. 또 방주가 출발하기 직전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부자나 노동자 할 것 없이 모두 구출된다. 영화는 이 정도 선에서 인류애를 외치는 것으로 만족한다. 돈이 지배하는 영화 속 세계는 이렇듯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의 연속이다. 가치나 신념 등은 필요치 않아 보인다. 타인의 목숨 따위는 그렇게 중요치 않고, 오직 내가 살아남았느냐가 더 중요해 보인다. 돈이 만들어낸 ‘개인주의’의 문제점을 시사 하고 있다. 물질을 통해 과학이 급속히 발전했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본성과 성숙한 인격은 창세기의 ‘선악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 이기적인 죄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생활양식에 있어서, 화폐가치의 중요성은 객관적인 정신과 주관적인 정신의 관계들을 성숙, 발전시켜 준다는 사실에 의해 증명된다. 짐멜에 의하면, 화폐는 사물들을 똑같은 가치척도로 환원시켰으며, 액체와 마찬가지로 내적인 경계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이 해관계들의 대립을 초월하여 공정한 무차별 성으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공정한 심판자의 입장을 떠나서 어느 한 쪽 입장을 지지하게 된다. 특별하고 일면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어느 곳이든 침투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에 의해서, 화폐는 특수한 욕구나 삶의 형식에 봉사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돈을 모으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 그래서 모든 행복과 삶에 대한 만족은 ‘돈’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단순한 수단과 전제조건이 심리적인 차원의 최종 목적으로 바뀌는 것이다.(신웅철, 2009: 124) 화폐경제는 사람들을 돈의 굴레 속에 살도록 했다. 짐멜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저울질하여 계산하고, 숫자로 규정하고, 질적 가치를 양적 가치로 환원시켜 소진하게끔 하였다.

화폐는 사회와 개개인의 정신까지 변화시켰다. 화폐는 삶의 양식을 바꾸고, 인간성의 상실을 가져왔다. 영화는 돈에 의해 재구성된 가치관은 인류구원과 새로운 인류건설을 위해 늙고 약한 사람은 과감히 배제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영화 속에서 총지휘하는 장관이 말하기를, “어머니의 나이는 89세일세. 그 분은 하나님을 빨리 보고 싶어 하실 거야.”라고 하고, 대통령은 “한 명의 젊은 과학자가 늙은 20명의 정치가보다 낫다.”라고 한다. 나아가 조사를 통해 방주에 탑승할 사람은 좋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으로 선택했다고 대답한다. 그렇다면, 누가 그들에게 사람을 선택할 권리를 주었는가? 젊고 똑똑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만을 선별해야 한다는 논리는, 마치 나치정권이 인종청소라는 명목으로 유태인을 학살한 사건을 연상케 한다.

영화 속에서 미국대통령은 지리학자에게 자신이 남아 있을 테니, 방주를 타고 새로운 세상으로 가라고 말한다. 과연 그들이 만드는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나님이 만든 선한 세상이 아닌, 인간들이 만든, 돈을 우상으로 하는 세상이 아닐까? 영화가 계속 된다면, 돈·권력·지식 등 가진 자들만을 위한 세상이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처럼 영화 <2012>에서 말하는 돈은 세계의 힘과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다. 짐멜의 주장대로, 화폐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으며, 세계 내에서 보편적인 형식을 가장 명확

하게 현실화하는 가장 안전한 보장 수단이 되었다.

III. 영화 <2012>의 관점과 한국교회의 돈에 대한 관점의 유사성

이 영화에서 노아의 방주가 시사 하는바는 인류가 멸망 할 것을 과학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의 방주가 필요했으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요구 되었다. 생존의 선택은 부자였으며 돈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이면 이 시대의 청 부론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

영화 첫 장면은 이렇게 시작된다. 비가 오는 날 빗물이 고여 있는 곳에서 어린 아이가 배를 가지고 놀다가, 지나가는 차에 의해 물장구가 생기고, 배가 뒤집히는 장면이다. 이 첫 장면처럼 영화는 홍수에 의한 재난, 그리고 최후까지 살아남기 위한 배가 등장한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연상케 한다. 이처럼 영화는 성경의 일정 부분을 취하여 영화의 소재로 삼고 있다.

성경의 이야기와 흡사한 부분이 또 있다. 세레 요한·예레미야처럼 회개와 종말을 부르짖는 선지자가 등장한다. 그는 산 속에서 홀로 생활하면서 인류의 종말을 끊임없이 외친다. 영화에서 그 선지자의 존재는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동일한 것으로, 종말의 시대에 기독교의 색채가 사라지고 새로운 종교로 통합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의 예언대로 실제로 재난이 일어났고, 그는 재난을 피하지 않고 온 몸으로 받아들인다.

이처럼 영화의 소재는 성경에서 가져왔지만, 기독교의 진리와 신념, 가치관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오히려 영화에서의 기독교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묘사된다. 그 외에도 브라질의 리우 예수상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다. 평소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대통령이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리지만 소용이 없다. 기독교는 인류의 재난 앞에 무기력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있는 요즘 시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휴머니즘의 진수를 보여주는 종교는 불교다. 히말라야 산맥의 한 절에서 라미는 가족을 염려하며, 고민을 털어놓는 제자에게 ‘지혜의 빛을 보려면 생각을 비워야 한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자동차 열쇠를 준다. 승려는 차를 타고 속세로 내려가 자신의 부모를 태우고 방주가 있는 곳으로 향한다. 가는 길에서 주인공 일행을

만나는데, 라마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로서 이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에 태워준다. 여기서 영화의 주인공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자동차와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했던 승려 때문이었다. 이렇듯 영화에서는 인류의 구원을 기독교가 아닌 새로운 종교를 통해서인 것처럼, 사람들의 동요를 이끌어 낸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질이 최선임을 주장한다.

모든 영화들은 영화감독의 의도와 저자의 의도, 그리고 그의 무의식적 욕구를 전달하고 싶어 한다. (이경직, 2008: 87) 롤랜드에머리히 감독의 영화에서는 기독교적 사상을 염두 해 두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영화는 기독교를 비롯한 현대 종교가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오히려 과학과 물질의 힘이 더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다.

1. 한국교회의 물질주의의 위험

영화에서 기독교의 무력함과 심지어 조롱 섞인 인용을 통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으로 보아 점점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다고 판단된다. 소위 ‘맘모니즘’의 영향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이원규, 1997: 28) 즉 돈을 사랑하고, 숭배하고 절대시하는 현상인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죄 있는 자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웅장한 건물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압적인 존재로 여겨져, 건물의 수준에 맞는 비슷한 계층들끼리 모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크고 웅장한 교회 때문에 주변의 몇몇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기도 한다.

이처럼 이기적인 교회성장이 부른 한국교회의 부작용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재벌교회를 세습하기도 하여, 일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불신을 받기도 하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중·소형 교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한다.

물질 소유의 위험성에 대해 손봉호 역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고등가치란 어느 정도의 금욕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물질의 소유는 일체의 금욕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물질을 소유한다는 것에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최하의 가치이거나, 아니면 아무 것도 추구할 가치가 없다고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추구는 교회의 원수이며, 오늘날의 교회가 이 사회의 이상인 물질주의를 비판하거나 물리치지 못하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손

봉호, 1980: 152) 어떻게 해서든 잘 살고보자는 경제성장 제일주의 정권의 영향이 아직까지 사회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일에 가치나 의미, 철학, 윤리적인 고민과 판단은 언제나 뒷전이였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 있다는 점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반기독교의 핵심으로 간주해왔던,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 맑스는 이미 이러한 현상을 예측했다는 사실이다. 맑스에 의하면, 뛰어난 목적물로서의 돈은 세상에서 자신의 생활·독립·힘을 확인시켜주고, 자신과 동일시하게 한다. 돈은 혐오감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해시킬 수 있다. 축적되고 비인간화시키며, 소외시키는 노동으로서의 돈은 보편적인 소외의 대리자이다. 돈은 현대사회의 신(神)이다.(Baum, 1983: 39) 그런데 교회마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돈’을 신으로 섬기려 하고 있다. 앙드레 비엘르는 돈의 우상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돈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은 극히 드물다... 사탄이 하는 일이란 인간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고 인간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는 사실을 던지지 암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재물의 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 재물의 신은 일단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나서는 인간을 더욱 교묘히 속이기 위하여 인간 자신이 신앙하는 종교적 행위를 계속하도록 자유를 허용한다.(Bieler, 1985: 63)

돈은 현대인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돈에 대해 사람들은 무지하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의 돈에 대한 지식은 ‘복의 증표’ 혹은 ‘신앙의 척도’였다. 그동안 부흥회식 교회 성장을 경험한 한국교회 성도들은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식의 가르침으로 인해 은혜와 동일하게 배워왔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과 신앙을 동일시했으며,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한국교회는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신앙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바로 앞 13절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청부론과 자발적인 가난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돈을 ‘신앙의 보상’ 혹은 ‘청부론’의 입장에서 보았다. 최근 이러한 논지의 글은 김동호의 『깨끗한 부자』와 부르스 월킨슨의 『아베스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의 주장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으며, 교회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잘 살게 되었지만, 돈에 대한 가치관이나 윤리 등 정신적인 면에서는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퇴보하였다. 그 상황에서 물질에 대한 복의 강조는 돈에 의해 얼룩진 사회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자연스럽고 어울리는 양상을 초래하였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비판과 신뢰감의 상실로 이어진 것이다. 김영봉은 ‘청부론’의 요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지적하였다.

그리스도인이 정당하게 돈을 벌고 그 수입에서 하나님의 몫과 다른 사람의 몫을 정직하게 떼고 나면 그 나머지를 마음껏 누릴 권리가 주어진다. 버는 과정에 있어 깨끗하고, 수입에 대한 몫 가르기에 있어서 깨끗하면, 나머지 돈에 대해서도 ‘깨끗해진다’ (더이상 책임이 없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김영봉, 2000: 233)

짐멜의 『돈의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화폐경제의 발달과 결과, 돈과 사람의 관계, 돈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 지나친 개인주의 등은 맘모니즘에 빠져있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이다. 특히 청부론으로 스스로를 비취 볼 수 있어야 하겠다. 현대의 교인들은 자신의 돈으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경제에 알맞은 소비생활을 하고 싶어하고, 구체적으로 더 많은 특권을 누리면서,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한다. 물질이 행복인 그들에게, 가난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므로 청빈해야 한다고 한다면, 출석할 교인은 줄어들 것이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소외된 자·병든 자·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들을 돌보셨다. 오늘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이 대형교회의 웅장한 문을 두드릴 수 있을까? 오히려 돈이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면, 거대하고 웅장한 대형교회의 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착각마저 드는 현실이다.

물론 돈을 소유하고 누린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악이 될 수는 없다. 또 돈을 버리고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선이 될 수도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돈에는 위험이 감추어져 있고, 가난에는 유익이 있다. 부의 위험성에 대한 김영봉의 말을 요약하면, ‘첫째, 부를 쥐고 있으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 영적생활이 고갈된다. 둘째, 부를 소유하면 할수록 더 많이 소유하여 안전을 누려야겠다는 조바심 때문에 결국 불안감이 커진다. 셋째, 부는 자기 혼자 즐기는 일에 빠져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넷째, 돈으로 사람의 마음까지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자리 잡게 된다. 다섯째, 돈을 잘 관리해야 할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다.’(김영봉, 2003: 40-43)는 것이다.

성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볼 때, 돈의 위험성을 절실히 알 수 있다. 오히려 자발적인 가난이 그들에게는 축복이었을 것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를 공유했으나, 사탄에 충만한 사람은 부의 이기적인 사용을 위해 위선과 거짓을 말하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은 것인데, 이는 더 많이 소유하고자 했던 탐심의 결과이다.

부에는 물질적인 부도 있지만 영적인 부도 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위해서 청빈을 실천하며 가난을 유익하게 보내기도 한다. 가난을 통해서 공허히 여기는 마음을 배울 수 있으며,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있는 생명의 존귀함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눔으로 도움을 받는 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많은 물질을 갖고, 개인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몇 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으니(마태복음 8:20, 누가복음 9:57), 재물을 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이것이 무소유이며 청빈인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금욕주의로 인해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금욕주의가 기독교의 현저한 특징으로 드러난 것은 중세시대이다. 토미즘(Thomism)의 영향으로 돈과 물질을 비영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생존을 위한 최소의 것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악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수도원 운동을 통해 금욕주의는 활기를 띠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도원의 금욕주의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 즉 “개인의 재산소유는 엄격하게 금지된 반면에, 수도원 자체의 재산은 허락되었다. 결국 수도원이 부를 축적하게 되자, 수도원 본래의 정신과 기강은 문란하게 되었고, 물질을 향한 개개인의 탐욕은 수도원이라는 공유적 관계 속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표출(이상규, 1991: 128)”되었던 것이다. 물질이 가진 힘을 억

제하기 위해 수도원이라는 통제수단으로 인간을 제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국 인간에 의한 수도원 체제 전체가 돈의 힘에 굴복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금욕생활의 기초는 기독교에서 온 것이 아니다. 헬라적 기원과 동양적 이원론에서 온 것이다. 바울 역시 거룩함에 대한 요구는 엄격하였지만, 금욕주의를 지지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여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로 부터의 도피일 뿐이다.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은 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버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주장은 ‘돈’에 대한 가치와 윤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 한 것이다. 돈에는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돈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 채 돈에게 접근하고 돈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물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 긍정적인 면과 한계를 분명히 이해하고 난 후 물질을 사용하고 물질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조성표, 2003: 54) 분명한 것은 돈을 단순히 객관적이면서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돈의 힘은 크다. 돈에 대해 무지하거나, 명확한 태도와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돈의 욕망을 제어하기 어렵다. 리처드 포스트의 다음 말에 귀를 기울여 보자.

돈은 단순히 중립적인 교환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도 매우 자주 그 성격상 악마적인 ‘힘’인 것이다. 우리가 돈을 비인격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한 그 돈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 이외의 도덕적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돈이 권세들에 의해서 생기가 돌고 활성화된다고 하는 성경적 견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맺는 돈의 관계는 도덕적 중대성으로 가득 차게 된다.(Post, 1989: 33)

돈에는 힘이 있고, 돈에는 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을 다스리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돈이라는 객관문화가 주체의 세련, 특성과 내면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로 객체가 인간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인간에게 달려있다(신응철, 2009a: 132). 돈은 현대인의 사회적 삶과 문화적 삶의 물질·경제적 토대가 된다. 그래서 돈을 소유한 개인은 생존을 위한 노동

과 투쟁의 유물론적 단계를 벗어나 사회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 그리고 개인적-주관적 삶의 양식에 관심을 갖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IV. 결론 : 한국교회와 돈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모색

지금까지 영화 <2012>를 텍스트로 하여 돈에 대한 철학적 사고,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짐멜의 『돈의 철학』을 중심으로 분업과 임금 등 화폐경제로 말미암아 개인과 사회, 주관적 문화와 객관적 문화의 불균형을 초래하였음을 살펴보았다. 짐멜이 생각하는 돈의 가치는 문화의 질을 높이고,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생산이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면서 화폐라는 수단을 통해서만이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돈이 생명과 직결되며,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정신세계의 변화까지 가져 온다. 돈에 의한 자기 발전은 ‘개인주의’를 낳게 되며 개인의 인격적인 진화가 없는 문화의 발전은 인간성의 파괴와 죄 성을 가져 온다는 것을 영화 속에서 시사한 바 있다. 또한 영화를 통해 한국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영화 <2012>에서 ‘부(富)’는 ‘청(淸)’과 관련이 없고, ‘생(生)’과 직결되었고, 한국 교회는 점점 <2012>처럼 청부가 아닌, ‘생부(生富)’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 영화에서 기독교는 영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필요한 소품, 가십거리 정도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영화는 현대 교회의 모습, 혹은 미래 교회의 모습을 예견하고 있는 듯하다. 돈의 논리·승자의 논리·적자생존·가진 자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가치관이 만연하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 형성을 기독교가 막기보다, 오히려 조장하고 누려왔다. 그래서 결국 영화에서의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 못한, 다른 종교 보다 멋있지도 않고, 선지자처럼 외치지도 못하는, 그래서 결국 몰락해 버리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적어도 영화를 만든 사람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기독교는 인간에게서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분리시킨다고 생각한다.(이경직, 2007: 19) 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영화의 소재는 성경을 인용하였지만 내용은 비기독교적이며 현실가능성을 예기하고 있다.

최근 기독교 내외부로부터 많은 존경과 칭찬을 들어왔던 모 대형교회가 엄청난 돈을

들여 교회 건축을 시작하였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점점 부각되는 사회 흐름을 타면서 여기에 대한 비판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반면, 2005년 용인의 모교회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40억 원의 차액을 그대로 사회에 환원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세상은 돈과 관련된 기독교의 태도에 관심이 많다. 그들은 교회에 현금을 얼마나 하든 상관없이 교회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영화 <2012>에서의 기독교가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기도 하다. 그러므로 영화 <2012>에 등장하는 무기력한 기독교의 모습을 통해 한국교회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임무와 사명은 고통을 겪는 자들에게 다가가 사랑을 나눠주고 베푸는 것이다. 그것은 가진 자의 여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돈신’에 굴복하면서 이러한 사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돈에 대한 ‘기복적’인 환상에서 빨리 깨어나 돈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판단, 정신과 윤리의식을 지녀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축복’을 보상으로 얻기 위함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있다. 물질에 대한 약속은 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된 사고·가치관·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돈에 대한 태도이다. 돈은 나누는 것이며, 절제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돈에 대한 태도이다. 세상 사람들이 돈의 논리로 사람을 마음대로 평가하고 재단해 버릴 때, 기독교는 돈의 논리를 초월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로마서 15장 1-6절 “약한 자의 짐을 지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부자는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는 미덕이 필요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덕영(1999). “현대인에게도 종교는 필요한가-짐멜이 본 전통과 현대의 갈림길에서”. 『현상과인식』 77. 65-77.
- _____(2000). “고전산책- George Simmel 돈의철학”. 『사회비평』 24. 92-130.
- _____(2006). “게오르그 짐멜의 가치론”. 『독일어문화권연구』 15. 271-311.
- 김영봉(2002). “청부론인가, 청빈론인가”. 『기독교사상』 527. 232-245.
- _____(2003).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 서울: IVP.
- 김태원(1999). “정보화 사회와 화폐 - 짐멜의 화폐의 철학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학회 추계특별 심포지움』. 53-75.
- 손봉호(1980). “한국교회의 배금사상”. 『신학지남』 47(1). 141-154.
- 송태현(2008). 『기독교 문화컨텐츠의 현황과 전망』. 서울: 북코리아.
- 신응철(2003). 『문화철학과 문화비평』. 서울: 철학과 현실사.
- _____(2006). 『기독교 문화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북코리아.
- _____(2009). “현대문화와 돈, 그리고 개인 - 짐멜의 돈의 철학에 나타난 문화와 돈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53. 113-135.
- _____(2009). 『문화, 철학으로 읽다』. 서울: 북코리아.
- 이경직(2007). “영화와 철학”. 『기독교철학』 5. 1-24.
- 이상규(1991). “성경에 나타난 부요의 양면성 - 하나님의 축복인가, 물질의 우상인가”. 『통합연구』 4(2). 107-135.
- 이원규(1997). “한국교회와 맘모니즘”. 『기독교사상』 466. 28-43.
- 이철우(2003). 『연극 영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조성표(2003). “성경의 재물관”. 『로고스경영연구』 1(1). 41-54.
- 홍경자(2001). “짐멜의 비극적인 것의 이해”. 『해석학연구』 8. 301-318.
- Bieler, Andre(1985). *Social Humanism of Calvin*. 홍치모 역. 『칼빈의 경제윤리』. 서울: 성광문화사.
- Daniel, Lillian(2003). 편집부 역, “기독교의 마지막 타부: 돈 얘기”. 『세계의신학』 60. 62-71.
- Graham, W. Fred(1986).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김영배 역.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서울: 생명의말씀사.
- Poster, Richard(1989). *Money, Sex & Power : The Challenge of The Disciplined Life*. 김영호 역, 『돈, 섹스, 권력』. 서울: 두란노.
- Simmel, Gerog(1900). *Philosophie des Geldes*. 안준섭, 장영배, 조희연 역, 『돈의 철학』. 서울: 한길사.

ABSTRACT

Autopsy of Adherence Relation between Korean Church and Money:

Through the Comparison of 『Philosophy of Money』 of G. Simmel and the Movie <2012>

Hwan-Ju Jin(Soongsil University)

This paper is about philosophical thought of money from the movie '2012',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Referring to the 『Philosophy of Money』 of Jim Mell, I've argued about division of labor and wages which is the fact that monetary economy caused unbalance between individual and society or subjective culture and objective culture.

And I've indicated that recent churches, especially korean churches are not free from materialism. It is God's will to own and manage money. But because people emphasize on the money as a measure of blessings, it is not discussed about the dangerousness of money. The bible admonishes that it is natural to apart from God and become to worship money when people chase to collect and manage money eagerly.

It doesn't mean to choose poverty voluntarily. Rather, I assert that it is better attitude as a christian to have heart of self-sufficiency and share with the poor, to live simple life.

Key Words: materialism, Korean church, mammonism, money, spirit